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20대 청년 창업의 과제와 시사점

- 혁신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조기 창업을 유인해야 한다

목 차

■ 20대 청년 창업의 과제와 시사점

- 혁신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조기 창업을 유인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i
1. 연구배경	1
2. 20대 청년 창업의 실상	4
3. 시사점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백 흥 기 이 사 대 우 (2072-6228, hkback@hri.co.kr)

정 책 조 사 실 : 이 장 균 수 석 연 구 위 원 (2072-6231, johnlee@hri.co.kr)

< 요약 >

■ 연구배경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29세 이하 청년층에서 창업이 활성화될 것인지 의문시된다. 법적 기준에 의해 '39세 이하'인 청년까지 감안한 창업지원 정책이 개발되고 제반 기반이 갖춰져 있는 데다가, 30대와 다른 학업, 병역 등 요인도 있어 일반적 29세 이하인 청년 여건을 감안한 창업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9세 이하(이하 20대로 표기) 청년으로 국한해 청년 창업의 실상과 과제를 창업 활동, 창업 구조, 창업 지원 기반의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 20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0대 청년 창업의 실상과 과제

첫째, 창업 활동 측면에서 20대 창업이 활기를 잃고 있다. ①우선 20대 창업이 줄고 있다. 국내 전체의 업력 1년인 창업기업은 2013년 대비 2015년(조사 연도 기준) 6.4% 늘었으나, 20대 창업기업은 40.5% 대폭 감소했으며, 비중(업력 1년 창업기업수)도 2013년 3.0%에서 2015년 0.9%로 크게 하락했다.

②20대 창업 기업은 업력이 너무 짧고, 생존율도 극히 낮다. 20대 창업 기업 중 업력 3년 이내인 경우가 2013~2015년 평균 88.1%(중소기업청 조사)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 60.8%, 30대 기업의 69.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주로 20대 후반에 창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 신생기업의 생존율(통계청 조사)이 20대 기업은 1년 53.4%, 2년 36.0%, 3년 26.6%로서, 이는 전체 기업의 생존율을 크게 하회한다.(전체 기업 생존률: 1년 62.4%, 2년 47.5%, 3년 38.8%)

< 업력 1년 청년 창업 기업 추이 >					< 기술 기반 업종 창업 비중 (%) >					
구분	비중			증감률 (13vs'15)	구분	전체	30대 이하	20대		30대
	2013	2014	2015					20대	30대	
39세 이하	25.5%	12.1%	19.0%	-8.1%	기술기반업종	26.8	31.3	25.3	31.8	
20대이하	3.0%	1.4%	0.9%	-40.5%	제조업	8.6	7.8	8.3	7.8	
30대	22.5%	10.7%	18.1%	-4.6%	출판·정보통신 등	1.0	1.4	1.7	1.3	
전체	100%	100%	100%	6.4%	사업시설관리·지원	1.4	1.4	1.2	1.4	
					전문·과학·기술	2.2	2.4	1.5	2.5	
					예술·스포츠 등	4.5	4.6	4.3	4.6	
					보건업·사회복지	3.0	3.1	1.6	3.2	
					교육	6.1	10.7	6.7	11.0	

자료 : 창업기업실태조사(중소기업청) 활용해 산출. 자료 : 창업기업실태조사(중소기업청) 활용해 산출.
 주 : 비중 = 해당 연령층별 업력 1년의 창업 기업 / 총 업력 1년의 창업 기업 (%). 주 : 2013, 2014, 2015년 업종별 합계 기준.

둘째, 창업 구조 측면에서 20대 창업에서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 모두 기대하기 힘들다. ①20대 창업은 시장 진입이 비교적 쉬운 생계형 서비스업 창업에 의존하고 있다. 20대 창업이 많은 5대 업종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39.2%)과 숙박·음식점업(24.2%) 등 생계형 서비스가 절반을 넘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 8.3%, 교육서비스 6.7%, 운수업 4.1%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창업기업과 비교해 보면, 20대 창업은 도소매업 비중(전체 28.5%)이 높고, 반면에 운수업(전체 8.3%)은 낮으며, 이외 업종은 비슷하다.

②20대 창업은 혁신형 창업(인증 기준)이 거의 전무하며, 30대보다 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 비중이 낮다. 20대 창업 기업 중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등 혁신형 창업으로 인증받은 비중이 0.3%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비중 1.4%에 훨씬 못 미치며, 타 연령층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기술 기반 업종에 대한 20대 창업 비중(25.3%)은 30대(31.8%)보다 낮으며, 특히 공공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등 공공 부문에 속하는 지식기반서비스 창업이 20대 이하는 각각 1.6%, 6.7%인데 비해 30대는 3.2%, 11.0%로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제조업 창업 비중은 20대(8.3%)가 30대(7.8%)보다 높은 수준이다.

③20대 창업은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2개년 평균으로 해서 전체 창업 기업당 종사자수는 평균 3.1명에 달하는데 비해 20대 창업 기업은 2.3명이다. 이는 30대 3.0명, 40대 3.3명, 50대 3.1명, 60대 이상 2.8명 중 가장 적다. 더욱이 20대 창업의 5대 업종 중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업종(앞쪽 표 참조)이 기업당 평균 3명에 못 미치는 일자리 창출력이 열위인 업종에 속한다.

셋째 창업 기반 측면에서 20대 창업은 자금 조달 및 회수 등 금융 접근 기반이 취약하다. 20대 창업기업은 정부 창업지원사업에의 참여율이 저조(미신청 92%)하다. 늦은 창업으로 인해 예산이 확충되고 있는 창업 도약기(창업 3~7년) 지원사업의 참여도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20대 창업기업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프리보드 시장, 코넥스 시장 등 증권 시장에 기업 공개한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20대 창업자는 타 연령에 비해 사업자금, 조세 등 금융 지원책을 더 요구하고 있다.

■ 시사점: “20대 맞춤형 청년 창업 정책” 개발이 요청

첫째, 20대 청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창업 준비부터 승계, 매각 등 과정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살(인수할)만한 20대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인수를 촉진하는 제도 및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 기반형 - 일자리 창출형 업종'의 20대 창업을 유인하는 특화된 창업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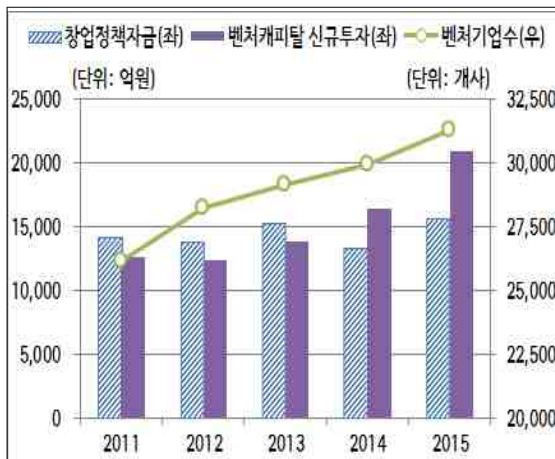
넷째, 창업 규제에서 벗어나 부담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Sandbox Zone' 제도를 운영한다

다섯째, '20대 창업'의 성공 모델 개발 및 확산을 목적으로 사업 초기부터 해외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책을 강화한다.

1. 연구 배경

- 현재 창업 자금이 늘어나고, 벤처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년 고용 및 창업 지원 연령에 해당하는 39세 이하 청년층¹⁾의 일자리는 오히려 미미하지만 감소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등 창업정책자금은 2015년 약 1.6조원 규모로 확대
 - 벤처캐피탈 신규투자는 2011년 이후 연평균 13.4% 증가해 2015년 2조원 대로 크게 확대되었고, 벤처기업도 2011년 약 2만 6천개사에서 매년 늘어나 2015년 약 3만 1개사에 도달
 - 그럼에도 불구하고 15~39세의 청년층의 신규채용 일자리(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²⁾는 2014년 대비 2015년에 0.6% 감소로 오히려 소폭 감소 (비교: 15세 이상 인구의 신규채용일자리는 2.1% 증가)
 - 그중 신규채용일자리 비중이 높은 3대 업종에 속하는 제조업(비중 20.8%)은 4.7% 감소, 도소매업(비중 15.2%)은 2.5% 감소, 숙박/음식점업(비중 10%)은 4.5% 감소 등으로 모두 대폭 감소

< 창업 자금, 벤처기업 현황 >



< 15~39세 신규일자리 창출 (2015년) >

구분	비중	증감 (15세 이상)
전체	-	-0.6% (2.1%)
주요 업종 (비중 순)	제조업	20.8% -4.7% (-4.2%)
	도소매업	15.2% -2.5% (0.2%)
	숙박·음식점	10.0% -4.5% (-0.8%)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9.1% 1.3% (2.0%)
	보건업·사회복지	8.5% 2.5% (2.8%)
	건설업	7.4% 5.0%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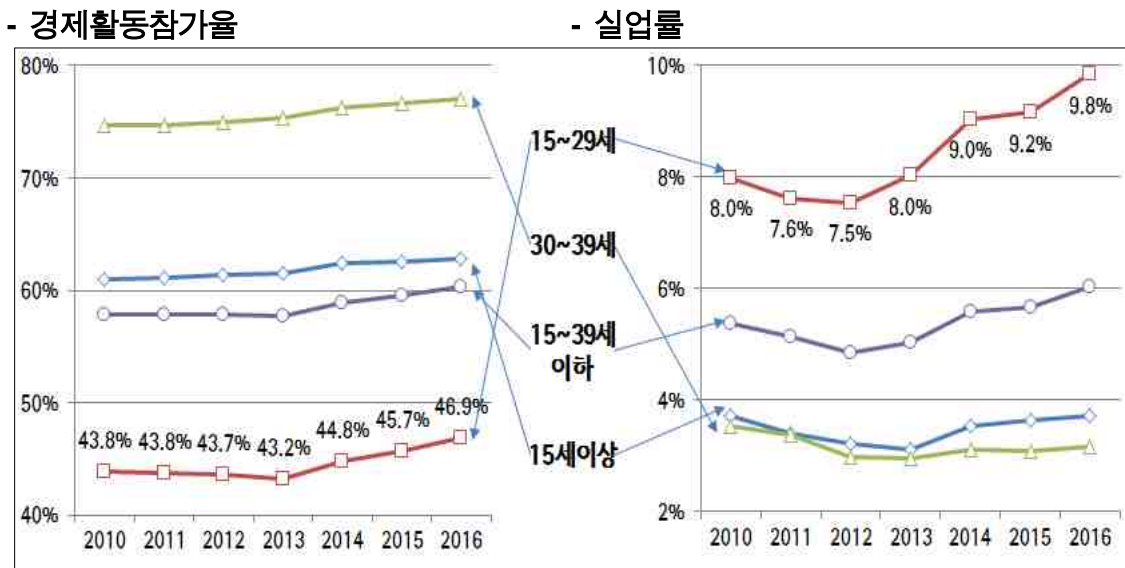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각년호; 자료 :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현황. 주 1) '비중': '15년 신규채용일자리 비중.

주 : '창업정책자금'에는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포함. 2) '증감': 2014년 대비 2015년 증감률.

1) '청년'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쪽 참조.
2) 법인설립 등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과 동일기업내 조직 확장이나 입퇴직 등으로 인해 신규채용된 일자리.

- 그런데 15~39세 청년층 가운데 29세 이하는 30대와 다르게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에서 추세상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대비 2016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5~29세는 3.7%p 늘어난 반면, 30~39세는 1.6%p 증가에 그침 (2013~2016년 경제활동인구수 증감률: 15~29세 +2.3%, 30~39세 -0.5%)
 - 2013년 대비 2016년의 실업률이 15~29세는 1.8%p 늘어난 반면, 30~39세는 0.2%p 증가에 불과 (2013~2016년 실업자수 증감률: 15~29세 +9.5%, 30~39세 1.7%)

< 청년층(15세~29세, 30세~39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현재 일자리 창출과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29세 이하 청년층 대상으로 한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으나 법적 제도와 학업, 병역 등 현실 여건에 의해 정책 효과가 제약될 우려가 존재
 -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청년’은 39세 이하인 대표자가 창업을 한 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³⁾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청년 범위인

3) - ‘창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창업’은 중소기업을 신설하는 경우이며, 창업의 범위를 규정.
 - ‘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창업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미만인 자이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15세~29세(공공기관 15세~34세)⁴⁾에서 더 확장된 30대까지 포괄
- 현행 창업 정책 자금 중에서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원 대상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되어 있음
 - 청년창업펀드는 민간운용사가 운용하는 벤처펀드를 통해 유망한 청년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함
 - 벤처기업인증도 기술성 평가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을 요구하고 있어 창업 여건이 열세인 20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제한적
 - 상기 이러한 제도에서 20대는 30대와 달리 학업, 병역 등 이유로 창업 우대 제도에서 소외될 것으로 우려되며, 혁신형 창업이나 20대 중반까지의 '조기 창업'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 그래서 본 연구는 20대 이하 청년으로 국한해 청년 창업의 실상과 과제를 살펴보고 '20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29세 이하의 청년 창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음. 그리고 연령층을 특정하지 않지 않는다면 편의상 '29세 이하'를 '20대'로 표기
 - 아래와 같이 창업 활동, 창업 구조, 창업 지원 환경의 3가지 측면에서 통계청, 중소기업청,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등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해 20대 청년 창업의 현실을 평가
 - ①창업 활동: 20대 창업 비중, 업력, 생존률
 - ②창업 구조: 20대 창업 업종, 기술 기반 업종 및 혁신형 창업, 일자리 창출 업종 창업
 - ③창업 기반: 창업 자금 조달 및 회수 등 금융 기반 접근
 - 끝으로 20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

- '청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로 규정.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을 15세~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34세로 더 포괄적으로 규정.

2. 20대 청년 창업의 실상

1) 창업 활동: 저조한 20대 청년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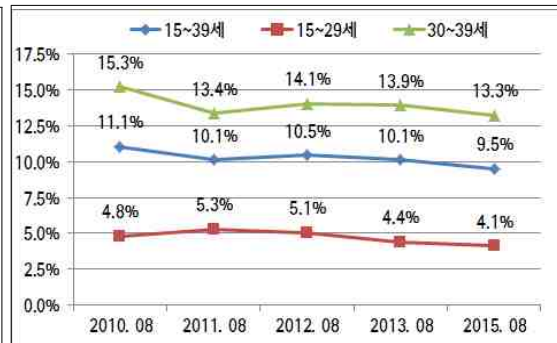
○ 20대(29세 이하) 청년 창업 활동이 위축

- **업력 1년에 해당하는 20대 창업기업은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
 - 증감률: 창업기업 중 업력 1년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3년(중소기업청 『창업기업 실태조사』 연도 기준)⁵⁾ 대비 2015년 6.4% 늘었으나, 이중 20대 창업기업은 동기간 40.5% 감소
 - 비중: 20대 신생기업(업력 1년)이 전체 신생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0%에서 2015년 0.9%로 크게 축소
- **20대 자영업도 축소 (통계청 자료 기준)**
 - 20대 자영업자는 2011년 8월 20.5만명에서 2015년 8월 16.3만명으로 줄었으며, 20대 취업자에서 자영업자 비중도 2011년 5.3%에서 2015년 4.1%로 축소
 - 15~29세 취업 유경험자 중 졸업(중퇴 포함)후 자영업으로 시작한 경우⁶⁾가 2013년 5월 4.8만명에서 2016년 5월 8만명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최근 약 2.0%(‘15 2.0%, ‘16 1.9%) 수준에서 정체될 보임

< 업력 1년 청년 창업 기업 추이 >

구분	비중			증감률 (13vs'15)
	2013	2014	2015	
39세 이하	25.5%	12.1%	19.0%	-8.1%
20대이하	3.0%	1.4%	0.9%	-40.5%
30대	22.5%	10.7%	18.1%	-4.6%
전체	100%	100%	100%	6.4%

< 청년층 자영업자 비중 >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HRI 산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HRI 산출.

- 주 1) 비중 = 해당 연령층별 업력 1년의 창업 기업 / 총 업력 1년의 창업 기업(%).
 2) 증감률: 2013년~2015년 업력 1년 창업 기업의 연평균 증감률(%).

- 주 1) 2014년 조사 미실시.
 2) 비중(%) = 자영업자 / 취업자.

5)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활용. 동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 중소기업 중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이외의 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삼음. 단, 본 보고서에서 동 자료의 연도는 보고서 연도를 기준으로 삼았음에 유의
 6)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로서 15~29세만 조사 대상.

○ 20대 창업 기업은 업력이 너무 짧고, 생존율도 낮음

- 20대 창업 기업의 88.1%가 업력 3년 이내

- 중소기업청 조사 기준으로 업력이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중에서 3년 이내인 20대 창업은 2013~2015년 3개년 평균으로 88.1%에 달함
- 이는 동기간 전체 창업기업 60.8%, 30대 기업 69.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서, 주로 창업이 20대 후반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

- 20대 신생 기업은 생존율이 전체 기업 수준을 크게 하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영리기업 대상)에서 2014년 전체 신생기업의 생존률⁷⁾이 1년은 62.4%, 2년 47.5%, 3년 38.8%, 4년 31.9%로 나타남
- 그런데 이들 중 20대(대표자 연령 기준) 신생기업은 1년 53.4%, 2년 36.0%, 3년 26.6%, 4년 20.0%로 전체 수준을 크게 하회

- 선진국 대비로도 국내 청년층 창업률이 저조

-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에서 42개월 이내 창업기업 비율을 의미하는 초기창업활동비율(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TEA)을 연령별로 보면, 2016년 한국은 18~24세 1.8%, 25~34세 4.7%로 조사
- 이를 한국과 같은 혁신주도형 경제에 속한 미국, 독일, 핀란드, 이스라엘과 효율주도형 경제인 중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

< 20대 창업 및 신생기업: 업력, 생존률 > < 연령층별 초기 창업 활동 비율(%) >

구분	업력 3년내 창업기업 비중	신생기업 3년 생존률	국가	2015			2016		
				전체	18 ~24	25 ~34	전체	18 ~24	25 ~34
30대 이하	70.6%	-	한국	9.3	2.2	4.6	6.7	1.8	4.7
20대 이하	88.1%	26.6%	미국	11.9	10.2	13.8	12.6	10.7	15.6
30대	69.1%	36.9%	독일	4.7	4.6	6.3	4.6	4.2	5.0
전체 기업	60.8%	38.8%	중국	12.8	10.9	17.7	10.3	8.5	15.3
			핀란드	6.6	5.2	8.6	6.7	5.2	8.7
			이스라엘	11.8	7.7	13.8	11.3	7.6	10.4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실태조사』,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를 활용해 산출.
 주 1) '비중'은 2013~15년 각년도 창업기업중 3년내 기업 비중을 3개년 평균해 산출.
 2) '생존률'은 2014년 존속 기업 기준.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각년호
 주 : '초기창업활동비율'은 창업 42개월 이내 기업 비율을 의미.

7) '1년 생존율'은 해당년도의 1년전 신생기업중 해당년도에 활동중인 기업을 의미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2) 창업 구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 모두 기대하기 힘든 20대 창업

○ 20대 창업은 진입이 비교적 쉬운 생계형 서비스업⁸⁾ 창업에 의존

- 20대 창업은 전체 창업 및 30대 창업보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높음
 - 20대 창업이 많은 5대 업종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39.2%, 숙박·음식점업 24.2%, 제조업 8.3%, 교육서비스 6.7%, 운수업 4.1%로 나타남
 - 전체 창업과 비교해 보면, 20대 창업은 도소매업 비중(전체 28.5%)이 높고, 반면에 운수업(전체 8.3%)은 낮으며, 이외 업종은 비슷한 비중임
- 선진국 창업 업종(전연령층 기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생계형 서비스 창업이 높은 수준
 - GEM 2016년 조사에서 초기창업활동비율의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도소매업(비중 46.4%)이 미국, 독일, 핀란드의 2배 이상 차지
 - 비교국가별 산업구조와 창업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생계형 서비스업 창업은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

< 국내 20대 창업 5대 업종 >

구분	20대 이하	비교 (*비중순)	
		30대	전체
도소매업	39.2%	32.3%	28.5%
숙박·음식점업	24.2%	21.7%	26.7%
제조업	8.3%	7.8%	8.6%
교육서비스	6.7%	11.0%	6.1%
운수업	4.1%	5.3%	8.3%

< 업종별 TEA 비중 (전연령층) 비교 >

구분	업종별 TEA 비중 (%)					
	한국	미국	독일	이스라엘	핀란드	중국
도소매업	46.4	22.1	20.4	32.3	21.0	59.6
제조업	12.2	6.1	9.9	3.4	4.5	2.5
보건·교육·정부·사회 서비스	11.3	16.3	29.0	17.9	16.4	10.2
정보통신	7.3	8.1	8.8	7.0	7.5	2.7
운수업	5.7	4.9	1.3	2.9	5.2	1.9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실태조사』 활용. 자료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주 : 2013~15년 3개년 업종별 창업기업수를 Global Report 2016/17. 함께해 비중 산출. 단, 자료원에 의해 합계 산출에 오차가 발생에 유의.

8) 음식, 숙박, 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을 총괄하여 지칭 (자료: 한국은행,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 2008.10).

○ 20대 창업은 혁신형 창업(인증 기준)이 아주 낮으며, 30대 창업보다 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 비중이 낮음)

- 20대 창업은 혁신형 창업(인증 기준)이 0.3%로 아주 저조
 - 20대 창업 기업중 정책 지원에 의해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등 혁신형 창업으로 인증받은 비중이 0.3%
 - 이는 전체 비중 1.4%에 크게 낮으며, 연령층 중 가장 낮은 수준 (비교: 30대 0.8%)
- 창업 업종 중 기술 기반 업종에 대한 20대 창업 비중(25.3%)은 30대 (31.8%)보다 낮으며, 특히 공공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이 크게 낮은 수준
 - 기술기반업종 중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등 공공 부문에 속하는 지식기반서비스 창업이 20대 이하 창업은 각각 1.6%, 6.7%로서 30대 3.2%, 11.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제조업 창업의 경우, 20대 창업(8.3%)이 30대(7.8%)보다 높고 전체(8.6%)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20대의 제조업 창업 열망이 높음

< 혁신형 창업 비중(복수응답 비중, %)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혁신형 창업	0.3	0.8	1.7	1.5	1.0
벤처 기업	0.2	0.6	1.3	1.2	0.5
이노비즈 기업	0.2	0.0	0.2	0.1	0.1
경영혁신형 기업	0.0	0.1	0.2	0.3	0.4
해당사항 없음	99.7	99.2	98.4	98.5	99.0

< 기술 기반 업종 창업 비중 (%) >

구분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이상
기술기반업종	26.8	25.3	31.8	26.1
제조업	8.6	8.3	7.8	8.7
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1.0	1.7	1.3	0.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1.4	1.2	1.4	1.4
전문·과학·기술	2.2	1.5	2.5	2.2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4.5	4.3	4.6	4.5
보건업·사회복지	3.0	1.6	3.2	3.0
교육	6.1	6.7	11.0	5.3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실태조사』 활용해 HRI 산출.

주 1) '혁신형 창업' 비중: 2014, 2015년 2개년 혁신형 창업기업을 연령별로 합계해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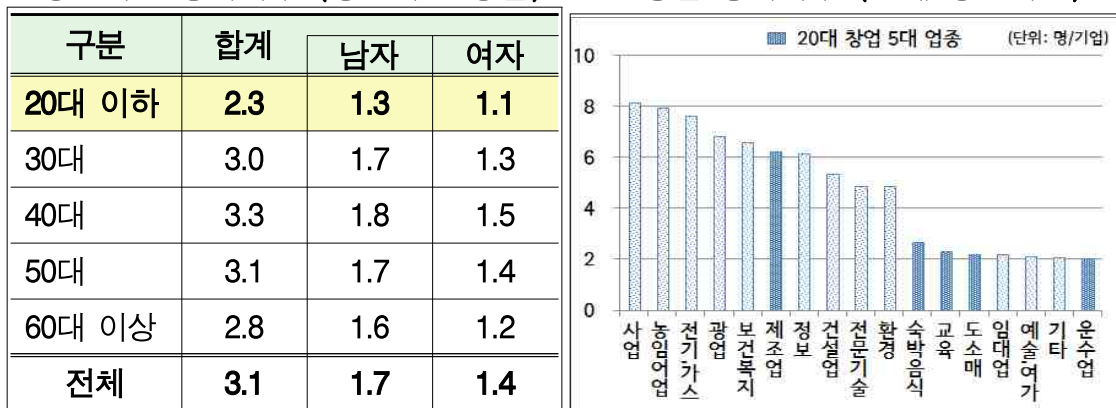
2) '기술기반업종' 비중: 2013, 2014, 2015년 3개년 업종별 창업기업을 합계해 산출.

- 9)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실태조사』의 조사 기준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혁신형 창업과 기술기반업종을 분류
- 혁신형 창업: 법령에 근거, 관련 기관으로부터 벤처 기업, 이노비즈 기업(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기술기반업종: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사업시설관리, 전문·과학 및 기술, 보건 및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교육.

○ 20대 창업은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집중

- 20대 창업기업은 종사자수가 평균 2.3명으로서 전체 기업 3.1명에 못미치며, 타 연령층 대비 가장 낮은 수준
 - 2014년과 2015년 2개년 평균으로 해서 전체 창업 기업당 종사자수는 평균 3.1명 (대표자 포함. 남자 1.7명, 여자 1.4명)에 달함
 - 이 중 20대 창업 기업(창업자 연령 기준)은 2.3명(남자 1.3명, 1.1명)으로서 30대 3.0명, 40대 3.3명, 50대 3.1명, 60대 이상 2.8명 중에서 가장 적음
- 20대 창업의 5대 업종 중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업종이 종사자수가 적은 업종에 속함
 - 전체 창업기업 대상으로 종사자수 기준으로 업종을 정리해 보면, 1위가 사업서비스(시설관리 및 지원) 8.2명이며, 다음이 농임어업(8.0명), 전기·가스(7.7명), 광업(6.9명), 보건(6.3명), 제조업 (6.3명) 순서
 - 그리고 종사자수 순으로 10위에 속하는 환경(4.9명)과 11위 숙박음식업(2.7명)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임
 - 20대 창업 5대 업종(6페이지 참조)은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업종이 기업당 평균 3명이 안되는 일자리 창출력이 열위인 업종에 속함

< 창업기업 종사자수 (창업자 연령별) > < 업종별 종사자수 (전체 창업기업) >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실태조사』 활용해 HRI 산출.

주 1) 2014, 2015년 2개년의 연령별, 업종별 창업기업의 평균 종사자수(대표자 포함).

2) 업종 표기(표준업종명): 사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농임어업(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보건복지(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보(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전문기술(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환경(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숙박음식(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교육서비스업), 도소매(도매 및 소매업), 임대업(임대업, 부동산 제외), 예술, 여가(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3) 창업 기반: 금융 접근 기반이 취약한 20대 창업

- 20대 창업기업은 정책 자금 및 금융 시장의 활용도 및 여건이 취약
 - 20대 창업 기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92%에 달했으며, 그 이유로 ‘지원사업 시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56.8%로 연령층 중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혁신형 창업(7쪽 참조)이 극히 저조한 관계로 동 제도를 통한 정책 자금 조달 경로를 활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 현재 예산 확충되고 있는 창업 도약기(창업 3~7년) 지원사업¹⁰⁾을 활용하는 경우도 20대 늦은 창업(5쪽 참조)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 20대 창업기업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프리보드 시장, 코넥스 시장 등 증권 시장에 기업 공개한 경우가 전무(2014년, 2015년 조사)¹¹⁾
- 주로 사업자금, 조세 등 금융 지원책을 요구
 - 20대 창업자는 ‘초기단계 금융’(60.0%), ‘창업 세금 감면’(43.1%), ‘성장 단계 금융’(27.9%)의 순서로 타연령층 창업보다 높은 비율로 금융 지원책을 요구
 - 반면에 창업 절차 간소화(11.7%), 공간·시설·장비 지원(9.9%), 인적 지원(4.3%) 등은 우선 순위에서 크게 밀리며 낮은 응답률을 보임

< 20대 창업자의 창업지원정책 참여현황 및 필요 정책 (2015년 조사 기준) >

구분	창업지원사업 신청 여부		창업지원사업 신청안한 이유* (응답률 1~2위)		필요한 창업지원정책* (응답률 1~5위까지)				
	신청했음	신청안했음	1. 몰라서	2. 필요 없어서	1.초기 단계 금융	2.창업 세금 감면	3.성장 단계 금융	4.경제 적 생계 유지	5.창업 절차 간소화
20대 이하	8.0	92.0	56.8	37.9	60.0	43.1	27.9	19.5	11.7
30대	18.5	81.5	54.0	32.3	45.3	34.5	16.3	23.4	9.0
40대	17.0	83.0	48.5	31.1	49.6	37.2	12.1	30.4	11.2
50대	13.8	86.2	48.8	29.8	47.7	30.2	15.0	29.1	11.4
60대 이상	10.7	89.2	46.8	33.0	44.9	28.2	9.1	29.0	10.3
전체	14.9	85.2	49.0	31.2	47.6	32.9	13.3	28.7	10.8

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실태조사』, 2016.5.

주 : *창업지원사업 신청 안한 이유와 ‘필요한 창업지원정책’은 2개까지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이를 응답률이 높은 순서로 각각 상위 1~2위와 상위 1~5위만 제시.

10) 중소기업청은 창업육성예산중에서 창업도약기의 예산 비중을 2016년 16%(464억원)에서 2017년 30%(979억원)로 대폭 확충하는 것으로 발표 (자료: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2016.12.7).

11) 국내 창업기업 중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공개 실적이 2014년 1,661,481개사중 프리보드시장 공개가 0.3% 있었고, 2015년 1,893,716개사중에는 공개실적이 없었음. 같은 조사에서 20대 창업자의 창업기업은 2014년 22,817개사와 2015년 18,211개사중에 공개 실적이 있는 기업은 없었음 (자료: 중소기업청, 『창업기업 실태조사』, 각년호).

3. 시사점

-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방안이 되고, '조기 창업'을 촉진하는 20대 맞춤형 창업 정책의 추진이 요청
 - 첫째, '20대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창업준비부터 승계(매각 포함)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 기반을 구축
 - 20대 청년 창업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자본 접근성, 인력 및 스킬, 생태계 등 창업 활성화의 3대 요건에 대한 맞춤형 정책 개발
 - 정부 및 연구소, 학교, 민간 기업, 금융 기관의 전문가 풀을 마련해 청년 창업가의 주요 장애인 자금을 비롯해 기술, 제품개발, 국내외 공급 사슬 (supply chain) 개척 지원 등에 대한 종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
 - 창업 기업 승계(매각 포함)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 교환 및 20대 창업 기업에 특화된 공적 거래 기반을 개발하고, 인수 기업에 대해 인수 촉진 인센티브를 제공
 - 둘째, '살(인수할)만한 20대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인수를 촉진하는 제도 및 여건 조성이 필요
 -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 정책은 창업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지만, 수요 중심의 자율적인 창업 동기가 미흡한 배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성장의 아이콘으로 20대 창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한계
 - 그 보완책으로서 일반 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 주도의 창업활성화를 통해 수요 여건에 기반한 창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및 사업화, 가치 평가 및 거래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시급
 - 민간 기업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발굴 및 지원, 그리고 이들 기업의 인수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 및 여건을 더욱 강화
 - 셋째, '기술 기반형 - 일자리 창출형 업종'의 20대 창업을 유인하는 특화된 창업 지원 제도를 마련
 - 업력 3년 미만의 20대 이하 창업 기업이 대다수인 현실을 감안한 벤처

- 투자 인증 등 각종 제도 개편을 검토
 - 조기 창업, 기술 기반형이면서 일자리 창출형 업종의 창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
 - 현재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 등과 연계하여 20대 창업 촉진 및 지원하는 정책 개발
- 넷째, 창업 규제에서 벗어나 부담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Sandbox Zone’ 제도를 운영
- Sandbox는 안전한 모래밭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통에서 유래되어 창업자 마음대로 무엇이든 해 볼 수 있는 구역을 의미
 - 즉 Sandbox Zone은 기존의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
 - Sandbox Zone에서 이루어진 창업의 사업성 평가와 안정성 검증 등을 통해 실제 사업에 필요한 규제 해소 등 제반 제도 개선
 - Sandbox Zone에는 스타트업에 관심이 높은 인력을 유인하는 연구 개발 센터 또는 사업 지원 시설, 그리고 활용 환경을 제공하는 종합 지원 수단을 마련
- 다섯째, ‘20대 창업’의 성공 모델 개발 및 확산을 목적으로 사업 초기부터 해외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정책을 강화
- 협소한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진출을 통해 성장 기반 확충으로 기업 가치를 더욱 제고하고 올바른 가치 평가의 기회를 확보
 - 해외 창업의 성공 모델을 지속적으로 늘려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대상의 20대 창업 활동을 촉진
 -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력을 대상으로 글로벌 사업 감각과 제품 및 서비스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로 활용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2072-6231, johnlee@hri.co.kr)

※참고: 20대 청년 실업률 1%p 낮추기 위한 창업 기업수 추정

- 20대 창업기업은 종사자 중 20대 이하 비중이 월등히 높음
 - 2015년 중소기업청 조사¹²⁾에서 전체 창업기업의 경우, 평균 종사자(3.1명) 중 20대 이하는 9.7%인 데 비해, 20대 이하 창업기업에서는 동 비중이 61.9%로 월등히 높음 (비교: 30대 28.1%, 40대 11.4%, 50대 6.1%)
 - 그렇지만 연령별 창업기업별로 20대 고용 비중을 산출해 보면, 40대 기업은 38.0%, 30대 기업 33.4%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다음으로 50대가 19.8%, 60대 이상이 5.2%이며, 그리고 20대 이하가 3.6%로 가장 적음
- 창업으로 15~29세의 20대 이하 실업률을 2016년 9.8%에서 1%p 낮추기 위해 필요한 기업수를 추정해 보면, 15.3만개 창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현재 창업기업 190만개사의 약8%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 2016년 15~29세 경제활동인구(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442만명, 취업자는 398.5만명으로 실업률이 9.8%임
 - 이를 1%p 낮추려면 20대 이하 청년에 대해 4만 6천명의 추가 취업자가 필요하며, 전체 창업기업의 20대 이하 평균 채용 인원수인 0.3명으로 나누면 15만 3천개의 추가적인 창업이 필요¹³⁾
- 여기에 연령별 창업기업의 20대 고용 비중을 적용해보면 연령별 추가 창업수는 20대 창업이 현재보다 30.1% 증가, 30대는 20.9%, 40대는 9.3%, 50대는 4.6%, 60대 이상은 2.3%로 산출
- 따라서 20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20대 창업만으로 역부족이며, 20대 채용수가 많고, 비중이 높은 20대~40대 창업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필요
 - 단, 진출 업종을 '일자리 창출이 높으면서 기술 기반 창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필요한 창업 기업수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음

12) 중소기업청, 『201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2016.5. p.131.

13) 업력 7년까지의 창업기업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에 유의.